

I. 推進經緯

- 최근들어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景氣下降, 交易條件의 惡化 등으로 가중되었으나, 기본적으로 높은 비용과 낮은 효율구조에 의한 경쟁력약화에서 비롯되고 있음
- 정부는 당면한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經濟安定속에 企業活力의 회복」을 목표로 한 「9.3대책」을 마련하였으며
 - 지난 10월 9일 大統領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구조적인 문제해결의 중점을 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경쟁력강화시책을 실효성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장관과 민간 각계인사로 구성된 「競爭力強化推進委員會」(위원장: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월 7일 제1차 회의를 가졌으며
 - 앞으로 매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할 계획임

II. 주요 推進實績

1. 公共部門의 절약 및 생산성 높이기

- 11월부터 종이류 및 유류경비의 10% 감축, 해외출장경비 지출기준 하향조정 등 經常經費支出 절감집행에 착수
-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시설의 민간이양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公企業 경영효율화 및 민營化 추진방안」(11.2)과 사회간접자본건설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民資 誘致 活性化對策」(11. 4)을 확정.시행

2. 企業의 경쟁력향상을 뒷받침

- 기업의 金融費用 부담완화를 위해 지급준비율인하 등을 통한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하고
 - 國產資本財 구입용 외화대출을 대기업에 대해서도 허용

- 工場用地 부담완화를 위해 대불.복평, 김천 구성단지등 장기 미분양 공단용지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 공단개발부담금등 8종의 負擔金 면제) 수도권외의 지역)와 공장입지등 규제완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중(97. 1시행)
- 物流費 절감을 위해 운수업에 대한 규제완화등이 포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안)을 마련중이며
 - 「종합물류정보망」시범서비스와 「물류표준마크제」도입준비
- 賃金安定을 위해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급.능력급 임금제도로 전환되도록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중(12월까지 완료)

3. 創業활성화 및 情報通信產業의 발전기반 구축

- 벤처기업에 대한 장외시장 등록요건을 완화(9.9)하고, 세법개정(안)에 스톡옵션(stock-option) 비과세조치 도입
- 정보통신.게임.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情報通信.産業發展綜合對策」을 수립(11월중 완료예정)

4. 貯蓄기반의 확대와 消費健全化

- 物價安定노력을 통하여 물가오름세 심리를 불식시키고 저축이 늘어날 수 있는 튼튼한 바탕을 조성
- 非課稅 家計長期貯蓄과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시행(10.21)하고,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기업의 接待費 인정범위 축소

III. 核心課題 실천계획

1. 企業의 金融費用부담 완화

- 資本財購入用 商業借款 허용
 - 금융기관을 통한 外貨貸出은 원칙적으로 금년 수준으로 운용하고, 상업차관.외화증권발행등 기업의 직접조달을 확대

- 자본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산기계를 50%이상 구입하는 기업에 대하여 海外直接借入을 허용(97. 1.1.시행)
- 97년중 20억불 수준(도입기준)에서 中小企業에 우선 지원하고, 대기업은 재무구조,국산기계 사용비율 등을 종합평가하여 도입허용하되, 자금수요에 따라 규모확대
- 97년중 10억불 범위내에서 尖端技術産業用 시설재를 도입할수 있도록 상업차관 허용. 단, 통화팽창억제를 위해 기존 외화 도입 계획 범위내에서 허용
- 중소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등은 종전대로 상업차관 계속 허용

○ 地方自治團體 現金借款 허용

-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SOC 投資財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연간 5억불 수준의 현금차관 도입허용(97.1.1 시행)
- 산업단지 下水處理施設등 산업단지관련 핵심 인프라사업과 物流費의 현저한 절감과 직결되는 도로(관광단지 연계도로 포함)를 대상
- 산업단지분양가 인하,규제완화등 企業經營環境 개선에 앞장서는 지방자치단체 우선지원

○ 金利의 하향안정화를 위한 年.基金의 자금운용 개선

- 연.기금의 金利入札을 금지하고 실적배당금전신탁에 대한 확정금리 보장 및 이면계약을 금지
-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公共資金管理基金예치금리(현 10.37%) 수준으로 운용토록 유도하고, 다수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토록 함으로써 과도한 受信競爭을 지양
-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주식투자를 촉진

2. 委任.委託 규제사무의 정비

- 自治團體 또는 關聯協會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총점검하여 중복 또는 실효성이 없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規制를 대폭 정비
- 1차로 우선 정비대상 427건에 대한 검토결과 폐지 123건, 제도보완 51건등 총 191건의 정비방안 마련

① 사전규제를 事後規制로 전환

- 전기용품 제조업 등록.신고제는 폐지하고 제품의 안전성 검사는 유지
- 사전적인 전기공사업자 수급한도제와 건설업자 도급한도제는 폐지하고 시공능력 공시제를 도입

② 중복규제의 單純化

- 일반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등록사항은 공사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시 검토되므로 폐지
-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폐지하고 공정안전보고서로 일원화

③ 業界 自律실시로의 전환 또는 실효성 없는 규제 폐지

- 전기기술자, 통신기술자, 안전관련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과 건설업자 경영지도 및 경영자 연수교육을 폐지하고 업체자율사항으로 전환
- 냉난방 온도제한 준수에 관한 지도감독 폐지

④ 管轄調整으로 실효성 제고

-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시설 등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업무를 시.군에서 지방환경청으로 이관

○ 年內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特別措置法」을 개정하여 개선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3. 義務雇傭制의 개선

- 사회정책적인 목적이나 産業安全, 環境保護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고용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으로 전환
- 자격증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자발적인 有資格者 雇傭을 유도하되, 유자격자 고용이 어려운 기업에서는 從業員중에서 지정된 관리책임자가 법정임무와 의무를 수행
- 산업안전 및 환경관련분야의 경우 과중한 고용부담을 완화
- 法定義務雇傭人員을 축소하고, 의무고용면제대상자사업장 범위를 확대
- 한 분야의 의무고용자를 채용하면 다른분야의 의무고용자 채용의무를 면제해 주는 相互兼職 인정범위를 확대
-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外部代

行機關에 委任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 年內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特別措置法」을 개정하여 시행
 - 다만 기존의 의무고용자에 대한 不利益 조치는 없도록 함

구 분	대 상 분 야
자율고용으로 전환 (13)	산업보건의, 조리사, 영양사, 식품위생관리인, 품질관리인, 계량기사, 열.연료관리자, 전기에너지관리자, 세척제위생관리인, 교통안전관리자, 집단에너지관리자, 소음.진동 환경관리인
과중한 고용부담 완화 (14)	보건관리자, 고압가스.LPG.도시가스.전기.산업.위험물 안전관리자, 광산보안관리자, 화학류보안책임자,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 대기.수질분야 환경관리인, 유독물.방화관리자
현행유지(2)	장애인, 국가유공자

4. 政府部門의 생산성 향상

- 「턴키」 방식적용을 확대하여 工事관련 豫算 執行의 생산성을 10%이상 제고
 - 앞으로 大型工事중 설계.시공.입찰관리가 필요한 중요공사는 「턴키」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中小企業의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 유도
 - 주요대상 : 88고속도로 확장,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건설, 울산신항건설 및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등
 - 「턴키」건수: 95년 24건, 96년 33건, 97년 50건이상
 - * 「턴키」 대상공사의 경우 繼續費制度의 활용을 확대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
- 정부조직.인력의 減量管理, 競爭體制도입 및 행정경비 절감
 - 금년말까지 單純技能인력과 現業官署인력의 年차별 감축계획(97~2000)을 수립하고 항만시설운영, 청사경비.관리등 民營化 또는 외부용역 가능분야도 발굴
 - 11월까지 開放型 任用擴大를 위한 법정

부적 직무분석을 완료하고, 12월부터 직위 선정 및 자격요건 설정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廣域化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리적 업무분담체제 구축(97. 1 기본계획 수립후 시행)
 - 의례적.형식적 행사의 「隔年制」시행등 행사비용 10%절감
- 정부부문에 대하여는 生産性向上을 위한 추가적인 개혁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성안하여 시행할 계획
 - 發電所 건설이나 工團開發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등 아직 추진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도입방안 마련

맺음말

- ◇ 새로운 世紀의 경쟁은 과거와 견줄 수 없이 치열한 모습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음
- 美國.日本등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은 물론 아시아와 중남미, 그리고 동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쟁력을 높이고자 피나는 變身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그동안 우리는 경쟁국보다 훨씬 높은 要素費用과 過다한 規制, 기업의 經營革新 노력 미흡, 사회전반의 消費 분위기 확산 등에 따라 경쟁력이 뒤떨어진 상황이므로
- 이제부터 정부.기업.근로자.소비자 모두가 새로이 發想을 轉換하여 다시한번 비상한 각오로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최대한 높일수 있도록 합심노력하는 것이 절실함
- ◇ 앞으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先導함으로써, 우리경제가 반드시 先進經濟로 도약하도록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음

협회지 개제 정보요구 -편집실-

협회지는 회원사의 공통적으로 관심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록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회원사에서 관련정보를 요청하면 관련 전문가를 찾아 개제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협회지 2호의 보일러 순수처리기술은 회원사의 요청에 따라 개제한 자료내용이다.